

“남도 정서 깃든 별교서 후학 양성하겠다”

동화작가 배봉기 교수 별교에 창작아카데미 개설 동화·청소년 소설반...창작집 감상·합평 등 실기 위주

동화작가인 배봉기(66) 전 광주대 문장과 교수는 3년 전 대학에서 명예퇴직했다. 대학교수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고 아인이 되었다. 사실 대학이라는 울타리는 양면성을 지닌다. 고정적인 급여가 나오기에 안주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창작을 하는 편에서 보면 자칫 타성에 젖을 수 있다.

배 작가가 최근 별교에 ‘동지’를 틀었다. 별교와는 연고가 없는 그였다. 무슨 연유일까? 예상했던 대로 작업실을 마련했다는 소식이었다. 명예퇴직을 한 뒤로는 거의 소식이 없었던 터라 그의 고향인 남원으로 낙향을 했는가 싶었다.

오랜만의 전화 통화에서 그는 “별교에서 작가를 한번 양성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대학교수로, 작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광주에 작업실을 마련하는 것이 낯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별교는 소설 ‘태백산맥’을 읽태한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지요. 그러나 의외로 문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다시 말해 기회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별교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동화·청소년 소설 아카데미’를 개설한 배경을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별교는 순천, 고흥, 여수, 광양 쪽에서 올 수 있는 거리”라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명퇴 이후 어떻게 보냈을까. 그동안의 근황이 궁금했다. 한동안 창작 소식을 듣지 못했던 터였다.

“국내외 곳곳을 다니며 일종의 ‘견문’을 넓혔습니다. 제주도에도 갔고 유럽에도 갔고 남미에도 갔었죠. 학교에 매여 있다 보니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디다. 한동안은 지리산 쪽에 칩거를 하며 새로운 경험을 했지요.”



그동안 그의 삶은 대학교수에서 창작인의 그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광주대 문과에서 25년 재직을 했던 터라 제자들은 광주 전남 곳곳에 퍼져 있었다. 그는 “자녀들도 모두 성장했고 저마다 자신들의 일이 있기에” 자신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별교의 작업실에 대해 물었더니 “소박하다”는 말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매주 두 차례 문청들과 함께 문학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사실 남도에서 별교라는 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은 남다른다. 언급한대로 조경래 소설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무대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해방 이전에는 경전선 철도가 지나면서 별교역을 중심으로 교통이 발달했지만 해방 이후에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별교에는 가장 남도다운 정서와 풍경이 남아 있다. 갈대천도 있고 문화관광지로도 조성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배 교수가 별교에 작업실을 마련한 것은 나름의 ‘문학적 고민’에서 비롯됐을 거였다.

3월 첫 주에 개강하는 아카데미는 동화와 청소년소설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단



순한 강의 전달식이 아닌, 실기 위주의 창작력 함양에 초점을 뒀다.

“수업은 기성 작가들의 창작집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위주로 진행됩니다. 수강생들의 창작품 발표와 합평도 중요한 활동이지요. 물론 동화나 청소년 소설의 주요 요소를 항목별로 강의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세 방식을 상황에 맞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 교수를 말할 때 아동문학과 소설, 희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펼친 전방위적 작가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대학 재직시절 신춘문예를 비롯해 각종 문학상 등을 통해 100여 명의 동화와 청소년소설 작가를 배출했다. 그 자신 또한 ‘소년중앙 문학상’과 ‘계몽문학상’ 동화부 등단해 ‘실현 가족’ 등 모두 25권의 동화와 청소년소설, 그림책을 출간한 바 있다.

또한 소설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문학사상’ 신인상에 장편 소설 ‘서울 서막 낙타눈갈 혹은, 낙타의 눈물’이 당선돼 몇 권의 소설집을 내기도 했다. 서울연극제-한국연극 100주년 기념공연 등을 통해 ‘인간의 시간’, ‘물’의 노래’ 등 여러 편의 희곡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수강생들이 독서와 창작 과정에서 갖게 되는 의문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해소하며 창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문학적 트렌드는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창작을 하는 기본적인 요소 일테면 소재와 구성, 인물을 만들어가는 방법 등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좋은 작품 유형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좋은 작품을 형성화하는 방식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합평을 하면서 창작의 방향을 모색해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요즘은 서사도 영상 쪽이 강하고 판타지와 결합하는 부분이 많지요. 이런 부분도 수업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창작 방법을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1기 아카데미는 동화반(매주 화요일 오전10시)과 청소년소설반(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각각 1반씩 모집하며 각 반 최대 인원은 12명이다. 오는 22일 마감이며 3월 첫 주 개강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가곡 100선을 노래하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1일 광주 북구청소년수련관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공연 모습.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제145회 ‘한국가곡 100선을 노래하다’ 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7시 북구청소년수련관(광주시 북구 문흥동)에서 열린다.

지난 1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곡 1위~40위에 이어 한국가곡 100선을 주제로 공연을 준비한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는 이날 클래식 코리야에서 선정한 한국가곡 100선 중 23곡의 노래를 함께 부를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흥남과 ‘성불사의 밤’, ‘옛 동산에 놀라’, 김동진 ‘목련화’, ‘내 마음’, ‘진달래꽃’, ‘수선화’, 조두남 ‘또 한송이의 나의 모란’, 채동선 ‘그리워’, 김순애 ‘그대 있음에’, 이수인 ‘내 맘의 강물’ 등을 들려준다.

또 김성태 ‘동심초’, 임금수 ‘강 건너 봄이 오듯’, 신귀복 ‘얼굴’, 김동환 ‘그리운 마음’, 김규환 ‘축복의 노래’ 등도 선보인다.

무대에는 베이스 기세관, 소프라노 양정임·정남임·정옥남·서옥주·김영미, 메조소프라노 조정옥·박원자, 테너 조성식·김종석·김우진, 바리톤 이길호·임동운 등이 오른다.

한편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3월 공연은 ‘봄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열린다. 전석초대. 문의 010-2694-4592.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한국학호남진흥원, 논어 강좌 개설

11일 개강...매주 금요일 조선대서

한국학호남진흥원(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이 시민을 대상으로 논어 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강좌는 호남진흥원이 조선대 재난인문학 연구사업단과 고문헌 국역강좌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학에서 전문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호남진흥원은 그동안 고문서류 및 근대 호남 선현의 개인 시문집을 교재로 해 인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국역교양강좌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유학 경전의 하나인 ‘논어집주’ 강의를 통해 차세대 국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대면 강좌는 오는 11일 개강하며 매주 금요일 각 2강씩(1교시 논어, 2교시 맹자) 60강을 조선대 본관 4층 중앙 재난인문학 연구사업단(HK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비대면 강좌도 진행된다. 문의 062-603-9616, 062-230-653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불교의 선문답과 현대시의 교감

고재종 시인 에세이집 ‘시를 읊자 미소 짓다...’ 펴내

“선은 시요 시는 곧 선이다.(R. H. 블라이스) 논어에 “시삼백이 사무사(思無邪)”라고 했거늘, 사악함이 단 하나도 없는 생각이란 본별과 차별의 마음을 박살 내야만 의심할 길 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선의 소이연과 닮음이 없는 것이다.”

남도의 정서를 자신만의 시어로 아름답고 깊이 있게 형상화해왔던 담양 출신 고재종 시인이 이번에는 불교의 선문답과 현대시를 모티브로 에세이집 ‘시를 읊자 미소 짓다-선문답과 현대시의 교감’ (문학들)을 펴냈다.

그동안 시인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면의 깊이 있는 공부를 해왔다. 밥벌이를 위한 공부나 아닌 창작의 세계를 열어나가는 차원에서의 공부는 그의 작품 세계를 견고하게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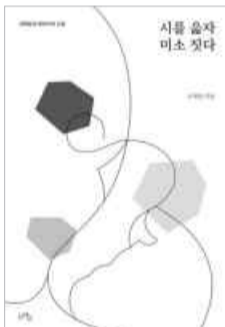
이번 에세이집은 선과 시의 교감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시인의 관심의 방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시인은 언어의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석가모니 세존이 대중에게 꽃을 들어 보일 때 제자가 곱씹어 겨우 겨우 미소를 지었다는 연화미소

(拈華微笑)의 일화를 소개하고 정현종의 시 ‘그 꽃다발’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선 수행에서 지관(止觀)을 통한 오도의 환한 미소를 얻는 것에 비견될 것”이라며 “정현종의 시에서 보일 듯 말 듯하게 피어나는 미소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언급한다.

모두 52개의 선 이야기는 시인들의 다양한 작품과 짝을 이룬다. 정현종 외에도 황인찬·이윤학·문태준·송찬호·최승자·천양희·황인숙·신경림·김명인·오규원·문재준·이문재·강은교·정호승·고진하·장성남 등 오늘의 대표 현대시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불교의 ‘선’을 종교나 철학보다는 하



나의 정신문화 관점에서 바라본다. “심원한 영성과 예술적 영감이 일상에서의 회통을 통해 감동의 고공과 심연, 곧 표현할 길 없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고 설명한다.

한편 고재종 시인은 1984년 실천문학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바람부는 숲속에 사랑은 머물고’, ‘사랑의 등불’ 등과 에세이집 ‘쌀밥의 힘’, 시문집 ‘주유시편’ 등을 펴냈다. 신동엽문학상, 시와시학상 젊은시인상, 소월시문학상, 영랑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